

## 경기·인천지역 언론 합동 회견

### ◇ 취임 1주년 소회

경제·민생이 어려웠던 1년이였다. 정치갈등·사회갈등 또한 그랬다. 지금 시끄러운 것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거쳐야 될 갈등과 혼란이다.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면 앞으로 정치질서가 좋아질 것이다.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눈앞의 정치적 인기나 이해관계에 급급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착실하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 ◇ 정치권의 보혁구도 전망

현실 속에서 실용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논쟁하고 타협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이념부터 앞세워 대결을 위한 대결과 같은 보혁구도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용적인 합리주의, 합리적인 실용주의 토대 위에서 진보·보수가 조화를 이뤄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의 문제해결 방식이 합리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법과 규범도 무시하고 편의주의로 치우쳐 많은 부조리가 축적됐고 구조화됐다. 그 결과 편법과 특권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것을 합리주의 사회, 사리에 맞는 사회, 이치·순리가 통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순리를 좇아서 합리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화의 세력과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지금의 갈등의 주제 아니냐.

그래서 보혁구도보다는 변화와 저항의 구도가 맞고, 이것도 죽기살기식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구도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 차세대 지도자 덕목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해 갈 수 있는 변화의 지도자여야 한다. 더 민주적인 사회, 더 분권화된 사회, 더 수평화된 사회로 변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더 정보화되고 세계화되고 개방된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개방의 지도자, 열린 지도자, 변화의 지도자’가 핵심적인 것 아닌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강조하고 싶다.

#### ◇ 총선에 대한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총선결과가 바라는 바와 같은 다른 민의로서, 국민의 뜻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회와 협력하고 말이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심각한 편견과 악의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국회라면 과반수가 아니어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 열린우리당 입당시기

되도록 늦게 하려고 한다. 입당하면 그때부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야 하고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야 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국민은 그것을 불안하게 볼 것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르면) 입당하겠다.

#### ◇ 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불미한 일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치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임명제로 돌아가기 어렵다.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면 직접 자치를 하고 싶어 한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잘 발전시켜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저는 정당정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방자치에서도 정당정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당정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에 관해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정당의 자기 동질성과 정체성이 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부작용이 많이 남게 된 것이다. 이 수준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기초는 물론이고 광역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 ◇ 남북교류·정상회담 전망

남북교류는 지난해 큰 성과는 없지만 6·15 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려서 내실 있게 차분하게 추진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남북간 회담의 횟수, 기간, 합의된 내용 등 굉장히 실속 있게 많은 진전이 있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간 통행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서해불안을 해소

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도 합의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답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핵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국면이다. 북미간, 한·미·일·북 사이에 치열한 전략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가 끼어들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라도 이루어져 안정국면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꾸려갈 생각이다.